

출판기능이 부여된 디지털 도서관* I : 디지털 도서관의 본질적 해석

Digital Library in the Notion of Publishing, I : From the Viewpoint of Intrinsic Attribute

정준민**
Jun-Min Chung

차 례

- | | |
|-----------------|--------------------|
| 1. 서론 | 4. 디지털 도서관의 추론적 본질 |
| 2. 도서관의 본질 | 5. 결론 |
| 3. 디지털 도서관의 상속성 | • 참고문헌 |

초 록

도서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이며, 이미 일반화 시킨 개념을 토대로 도서관에 대한 기능과 본질에 대해 추론해 보았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전자도서관에 대한 해석을 내림으로 도서관의 본질적 이해와 역할을 그려보았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의 본질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같아야 하며, 그 변화와 발전은 본질에 대한 그 시대 기술의 최적화 작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 서비스의 본질인 출판기능이 존재하며, 정보의 생산, 유통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무형의 가치창출 행위가 도서관이며, 그것이 곧 디지털 도서관인 것이다.

키 워 드

도서관의 본질, 유비쿼터스, 출판기능, 디지털 도서관

* 이 논문은 2002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Professor, Principal Researche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nd The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 informee@gmail.com)

• 논문접수일자: 2006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20일

ABSTRACT

The prototype of a library is analysed upon the facts that are generalized and recognized as commonsense. On the extension of the prototype, a digital library is considered.

Ultimately the libraries' prototype should be steady at any time. A library which is being a digital library to which the best technology at that time applies, should function as the creator of the value by publishing, circulating, and re-production of the information resources.

KEYWORDS

Ubiquitous, Library' Prototype, Digital Library, Publishing

본 연구는 크게 두개의 명제로 이루어져있다. 첫 명제는 디지털 도서관의 출판행위가 필연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 디지털의 본질적 속성을 도서관이 갖는 개념의 상속으로 설명하며, 두 번째 명제는 이를 전제로 출판행태에 대한 기술적 전개를 통한 도서관의 진화로 디지털 도서관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그 첫 명제로 디지털 도서관의 필연적 행위로 출판이 이미 도서관이 갖는 본질적 행위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1. 서 론

도서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그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의구심이 그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나라와 한자권(漢字圈) 나라에

서 사용하는 용어, 도서관(圖書館)과 영어의 도서관(Library) 또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용어, 도서관(Bibliotheca, Biblioteka, Bibliotheque)은 과연 같은 개념과 본질을 표현하는 것일까? 용어를 넘어 각국, 각 시대에 걸쳐 도서관은 과연 같은 기능과 역할 또는 개념과 본질을 갖고 있었을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은 도서관의 한 형태로, 아니면 도서관의 미래 진화로 볼 것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이며, 우리가 이미 일반화 시킨 개념을 토대로 도서관에 대한 기능과 본질에 대해 추론을 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전자도서관에 대한 해석을 내림으로 도서관의 본질적 이해와 역할을 그려 보고자 한다.

2. 도서관의 본질

미국 ALA에서 정의한 도서관권리장전에 의하면 '도서관은 그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영역 내에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한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자원에 대한 도서관 안팎에서의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법률적 제한에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ALA 1996). 또한 한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도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2003년5월29일 개정). 이 외의 다른 문헌을 더 언급하지 않아도 위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도서관의 기원을 언급한 문헌들을 보면,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헌적 고증보다는 차라리 고고학적 발굴과 관찰을 통한 물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을 책(파피루스, 점토판 등)의 터미로 보았으며 그것의 서명이나 내용에 대한 목록이 함께 발굴되었을 때(박성식 역 2004) 더욱 확실히 그곳을 도서관이라 칭하였으며 모든 후속 문헌들이 이 사실을 비판 없이 인용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그 사실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도서관이 BC 2000년 경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물리적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도서관의 역할은 많은 생태적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 도서관이 단순히 자원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중세 유럽의 암흑기에 는 금서를 모아 결과적으로 문화의 연결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종교적 이유와 당시 출판문화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한 필사의 방법을 통한 복제로 정보자원을 확대해 나가기도 하였다. 결국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도서관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미국에 건너와서 비로소 지금의 형태인 대중문화, 평생학습의 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다면 진정 도서관은 형태적으로는 장서가 기본이고 자신이 수집한 장서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한 것인가?

앞에 언급한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보면 장서를 구축하는 이유는 정보 서비스를 잘하기 위함이다. 즉, 정보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수집(장서구축)은 수단이 되는 것이다. 왜 정보 서비스를 위한 수단으로 수집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 수집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수집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 선택된 것일까? 정보 서비스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한 수집과 가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 그것이 도서관의 전부인 지를 살펴보자.

2.1. 정보 서비스

정보 서비스를 풀어보면 '정보의 서비스', '정보에 대한 서비스'로 특정 정보가 대상이거나 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서비스

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로 경제/경영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그 의미는 “고객의 편의과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 자신 내지 다른 서비스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 노력, 행동의 수행”(이순룡 1995)을 말한다. 즉, 물질적 재화가 아닌 물질에 가미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의 과정이나 행위로 설명되어진다.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는 공식적으로는 ‘Reference Service’ 로 표출되며 1876년 Green에 의해 ‘Reference Service’ 를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한 이래 2002년까지, ‘Reference Service’ 의 정의와 품질평가를 위해 여론조사를 통해 수집된 48개의 정의를 기초하여 보면 (Rabner and Lorimer 2004), 결국 정보 서비스의 시대적, 지역적 해석의 차이는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이해의 차이임을 알 수 있는데 정보를 인간의 알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와 같은 불확실성을 내재한 미디어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얇이라 함은 인간의 오감을 통한 본능적 행위라고 본다. 즉,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말하고 느끼게 하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그 전체가 얇의 행위이며 한편 전달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자신의 얇을 시공을 초월하여 전달하고픈 인간의 욕구가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냈으며 우리는 피상적으로 무형의 정보를 유형의 매체를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 서비스는 매체에 대한 서비스를 말하

는 것이며 이는 유형의 매체에 부가적으로 작용하는 무형의 가치를 뜻한다 하겠다. 즉, 인간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서비스라는 부가가치로 표출된 것이 정보 서비스인 것이다.

그것은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의 소비 즉, 누군가 이 정보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는 소비적 측면에서만 보다보니 정보 서비스는 정보의 제공을 위한 무형의 가치로만 인식되어진 것 같다. 비록 소비적 시각에서 정보를 보더라도 결국은 그 소비는 새로운 생산이 전제가 되는 것이며 그 생산은 새로운 소비를 만들고픈 인간의 본능적 행위로 본다면 정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작용하는 무형의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 서비스는 정보의 생산과 정보소비 행위에서 최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대지를 확보하여 집을 짓고자 한다고 할 때, 집주인은 먼저 땅을 파거나 언덕을 매워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지에서 흙을 퍼내거나 아니면 다른 곳의 흙을 필요로 한다. 이럴 때 다른 곳에서 이와 상반되는 요구가 발생하여 이곳에서 퍼낸 흙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그곳의 퍼낸 흙을 받아 올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두 곳은 모두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 그

서비스의 가치는 최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후에 누군가의 요구를 위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흠을 모아두어 다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면 여전히 그 서비스의 가치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도서관의 역할이 아닐까?

2.2. 정보의 축적과 가공

먼저 정보 서비스에서 소비자를 위한 행위를 보자. 누군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정보가 있다고 하자. 이 정보는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소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리라.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만든 정보가 신속히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 소비자와 정보를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전달의 기술도 요구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그 정보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정보가 바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Halman(1995)은 기록문화를 4천년에 걸친 도서관 역사와 결부시켜 종족문화(種族文化), 부호문화(符號文化), 인쇄문화(印刷文化), 시청각문화 등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를 정보기술이 책을 만들고 많은 유형의 인쇄 자료가 사라지는 우주문화(宇宙文化)라고 지칭하였다.

인간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개발하였다. 동굴에 그림을 그리고 문자를 만

들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를 기록하였다. 그 행위의 대부분은 종교적 의식이 목적이었으며 궁극엔 삶과 역사에 대한 기술로 이어졌으며 이는 자의반 타의반 지식의 전승과 보편화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필사도구를 보면 지식의 전승과 획득은 여전히 그 정보자원을 가지므로 가능했으며 그 대표적 기관이 소위 도서관의 기원이라 불리는 곳이었던 것이다. 즉, 정보의 생산자가 자신의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히 이용되길 바란다면 그 정보매체는 이미 소비자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그것이 소비자의 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 자원은 이용되고 퍼졌으리라.

도서관이 만일 정보 서비스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면, 도서관은 생산되어진 정보자원을 가급적 빨리, 그리고 많이 수집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당시 필사도구의 성능과 유통구조를 미루어 짐작해 보더라도 신속한 이용을 위한 최선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수집은 정보 서비스를 위해 또 다른 행위를 요구하게 된다. 그것은 수집한 정보자원의 적합한 이용을 위한 연결행위이다. 이미 수집된 정보자원이 누구 위한 자원인지, 소비자가 찾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하거나 소개할 수 있다면, 미필적으로 도서관 내에서 지체되는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술적 행위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일부는 도서관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도서관과 공생관계인 출판사들로부터 지원되어진다. 소위 참고문헌

(reference tool)들이 여기에 속하는 정보자원이다. 그런데 그런 참고문헌에 대한 요구가 출판사들의 자발적 행위인가, 아니면 도서관의 요구에 의한 역할분담 차원에서의 출판사의 지원인가? 먼저 참고문헌의 성격과 수용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문헌은 말 그대로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 reference service)를 위한 문헌으로, 이를 제2차 정보자원이라 부른다. 일반 문헌이 개인을 대상으로 출판되어진다면, 참고문헌은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집단을 위한 문헌이다. 우리가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초기에 참고봉사라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이 개인들을 대표하는 제1 독자로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자원이다. 비록 사서가 정보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 분야에 대한 참고자료를 알고 이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 자원을 통하여 도서관 자원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Buckland 1988).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도서관은 정보자원의 이용을 위한 최선의 공간이며, 그 본질적 행위를 위하여 참고문헌과 같은 정보자원을 생산의뢰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며, 소비자의 정보욕구를 위해 최대한 신속한 수집과 가공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빠른 수집은 그 정보자원의 요구를 예측하고, 그 정보자원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필자를 찾아 생산을 종용하는 것이다. 만일 도서관이 기술적으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면 굳이 출판사에서 정보가 생

산되어지고, 그 정보에 대한 2차 정보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하고 가공하여 소비자의 정보요구에 대처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비록 출판기술을 도서관이 갖지 않아도 참고문헌의 예와 마찬가지로 출판사나 저자에게 특정 정보의 생산을 종용한다면 결국 정보 서비스의 패러다임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2.3. 정보의 생산

이제 참고문헌을 포함한 정보생산의 매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출판의 정의는 매체의 변화와 함께 변해왔다. 기본적으로 그림이나 문자를 특정매체에 새겨 세상에 드러내는 작업으로 단순한 필사와 구별되며, 사적(私的)이기보다는 차라리 공공(公共)에 가까운 보존과 배포의 행위이다. 초기의 단순한 필사로부터 보다 쉽게 널리 배포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대량생산의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량생산의 대상으로 출판되었을까? 초기의 출판은 그 과정과 비용이 많이 들어 정말 대중적 가치를 가지지 아니하면, 출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판도구 조차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비싼 기계였다. 서양의 예를 보면, 구텐베르크(Gutenberg)의 출판 혁명 이후에도 상업출판이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을 보면 출판기술의 발전이 신문, 잡지, 소설 등 대중문화를 낳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Gerard 1976). 동양의 경우는 목판본, 활자본 등 비록 출판기

술의 역사가 서양을 앞선다 하여도 그 성능에서 서양에 뒤져 결국은 서양의 출판기술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상업출판은 발행비용보다 자원의 가치가 클 때 비로소 성립한다. 태초에 인간은 기록을 남길 목적으로 많은 필사도구를 개발하였으나, 필사행위 그 자체가 일반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이집트의 경우,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이용해 종이를 만들고, 여기에 기록을 하였으며, 점토판, 양피지 등 필사도구는 그 기술이나 필요성이 특정 계층이나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그 후 동양의 종이와 전래되면서 누구나 쉽게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지만, 문자의 발명은 또 다른 계층을 만들어 기록을 특수한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었으며, 출판혁명 이후에는 개인만의 기록으로서의 정보 가치보다는 이것이 전파되고 전승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게 되었고, 그 가치가 출판비용을 넘을 때 비로소 출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Gerard 1976).

출판을 할 만큼 가치를 갖는 지식자원이란 어떤 것일까? 비록 많은 부수는 아니나, 그 내용의 가치를 인정받아 비싼 가격에 팔리거나 또는 지적 가치는 떨어지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대량생산을 통해 출판비용의 임계점을 넘는 것들이 출판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근세 출판의 역사를 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연구성과물로서의 출판물이 성행하였으며, 학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출판물을 갖는 것이 명예요, 또 업적이 되었다. 출

판의 지속적인 기술발전은 결국 대중문화를 만들어냈으며, 도서관을 지금의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즉, 출판물의 제1 독자로서 출판물의 충분한 소비를 유도하였으며, 대중들로 하여금 누구나 쉽게 다양한 출판물에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필자가 이 시기를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이 생겨난 시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판기술의 발명, 그리고 발전은 출판물의 양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출판의 발명은 출판업자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었고, 그 직종은 성장하여 새로운 출판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출판시장은 출판물의 소비가 전제이며, 그 소비를 위해서는 출판소재와 독자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많은 소재와 많은 독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안정된 독자와 저렴한 출판비용이 요구된다. 유럽의 르네상스는 학문의 발전을 예고하였으며, 학문은 대학을 만들어냈다. 대학은 학술정보의 유통공간으로 출판의 역할은 학문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지식자원의 생산은 지식의 폭발로 이어져 스스로 학문이 성장하는 매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공간에 도서관이 있었다. 학술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식의 축적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당시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박물관적 성격을 갖는 아카이브가 존재하였으며, 그 아카이브가 편의적으로 학자들에게 지식탐구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진정한 도서관이 싹트던 것이다. 즉, 도서관은 단순한 책의 더미가 아닌 지식을 생산하고 생산된

지식이 축적이 되고 또 이 과정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사서가 존재하면서 비로소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이 도서관은 출판자본의 확대차원에서 독자층을 학자에서 대중으로 넓히며, 공공 도서관을 만들어내고, 도서관, 출판 모두 그 최고를 이루게 되었다.

근세 초기의 도서관들은 출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자원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하였다. 독자를 대표하는 제1 독자로서 새로운 정보의 요구 및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다시 말해 독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전달의 시차를 좁히는 매커니즘(정보 서비스)으로 참고문헌의 생산을 출판사에 요구하였으며, 독자층의 정보 활용을 통해 다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어짐으로써 출판사 입장에서는 신규 저자발굴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결국 정보의 생산은 곧 정보의 선택적 활용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바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결국 그 가운데에 도서관이 존재하며, 그것이 도서관의 매커니즘인 것이다.

3. 디지털 도서관의 상속성

디지털 도서관은 도서관의 한 형태인가? 아니면 진화된 미래형 도서관인가? 도서관 역시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발전한 유기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만 우리가 특정 시기의 도서관을 도서관의 원형(prototype)으로 인식하여 변화보다는 공통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춘 연역적 해석으로 도서관을 보아 온 것이다. 초기의 도서관을 설명하면서 근세의 도서관을 그 모델로 삼은 것이 대표적인 예로 도서관을 책의 터미로 이해함으로써(송영희 외 2005) 지금의 도서관상이 만들어졌고, 다른 것들은 도서관의 다양한 형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도서관 역시 도서관의 한 형태로 인식되면서 본질적 갈등을 빚게 되었다(Lee 2000). 도서관은 책의 터미가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도서관은 물리적 책이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그와 유사한 것으로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서 도서관은 이미 보통명사화 된 집합체의 개념을 갖는 것이다. 즉, 도서관은 집합적 개념이 강한데 비해¹⁾ 디지털 도서관은 집합이 기보다는 분산의 개념이 더 강한 것이다. 그런데, 분산은 극단적으로, 무형의 개념이 강하다고 볼 때 디지털 도서관은 그 실체조차 도서관의 정의에 위배되게 된다. 결국, 둘 중의 하나는 개념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이 책의 터미가 아니거나, 디지털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도서관은 책의 터미를 빼면 모든 것이 도서관의 기능과 흡사하다.

1) 도서관이 상호대차와 원문 서비스 등 도서관 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서관 정의에서 보면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이용시킨다 하여 본질적 해석에서는 도서관은 독립적이며 집합적이라 볼 수 있다.

장난감 도서관이 책이 아닌 장난감의 더미라고 볼 때, 단지 더미가 존재한다 하여 도서관이라 불리는 것은 아니리라 본다. 그렇다면 책의 더미가 아닌 다른 요소가 장난감 도서관을 도서관이라 부르는 것이고, 또 인식적으로 그리고 진화론적으로 책의 더미는 없지만 도서관 일 수밖에 없는 디지털 도서관 사이에는 무언가 공통점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도서관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도서관이 도서관이기 위한 조건은 책의 더미가 아닌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도서관의 기원을 찾는 원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1. 디지털 정보자원의 특징

디지털 정보자원을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정보통신기술자, 출판업자 그리고 도서관 사서가 보는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다른 해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술에 있다고 하겠다. 기반기술을 얼마만큼 응용하느냐에 따라 각기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과 교육공학 영역이 이미 디지털 자원을 자원의 최소 의미조각인 learning object 또는 digital object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출판업자는 디지털 자원을 멀티미디어 매체로, 사서는 인쇄매체의 단순한 디지털 전환까지 포함하여 디지털 정보자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영역에서 디지털 정보자원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정보자원의 특징을 잘 아

느냐 하는 것이다.

표현의 유연성과 자원의 재활용이 곧 디지털 정보자원이다. 미디어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자의 의도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된 자원이 곧 디지털 정보자원이며,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정보자원을 의미 있는 최소단위로 구성하여 다른 자원과의 조합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Salaberry 2000). 그러나 일부 출판업자와 사서는 그러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특징을 이해하기보다는 기왕의 종이매체가 보여준 성질을 벗어나지 못한 최소한의 형질변화로 디지털 정보자원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사서들이 취급하는 디지털 정보자원은 이용의 편의성만을 강조한 디지털 복제의 개념이다. 그러나 디지털은 이미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며, 디지털의 특성상 복제가 자신의 성질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출판의 경우, 정보의 생산은 곧 복제를 의미하고, 그 복제행위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제만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종이매체의 속성인 것이다. 그러나 출판업자 역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기술력의 한계로 여전히 복제의 개념이 전제된다. 비록 만드는 내용이 멀티미디어로 디지털 기술의 집약이지만, 그 전달행위는 매체만 종이를 탈피했을 뿐 여전히 복제가 전제인 초기 디지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징을 전제한 행위가 아니라 종이매체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한 관성적 행위인 것이다.

종이매체에 대한 관성적 행위는 여러 곳에 나타난다. 우리가 책을 출판하고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은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정보 전달의 매체이며, 그 목적은 생산자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그 전달 매체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책과 학술지는 기술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가 생산되는 순간이, 또는 그 정보가 관련 전문 집단의 검증이 일어난 순간이 곧 유통의 순간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는 네트워크가 설정된 곳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또 반향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보자원 자체도 생산자 스스로 생산한 정보와 이미 남에 의해 생산된 정보자원을 자신의 생산물에 활용한 경우 역시, 복제와 전제가 아닌 인용 대목에 대한 적절한 링크를 제시함으로써 철저한 자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또 유통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종이 출판에서 갖는 인용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 책의 배열은 책이 갖는 물리적인 계에서 기인한다. 그러기에 목록은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하지만, 책은 오직 한 곳에만 배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자원은 메타 데이터가 정보자원 자체에 포함되며, 가공과 그에 따른 접근이 유연하기에(Cunningham 2001) 굳이 배열을 위한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끝으로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특질상 로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

보자원을 요구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해 분산된 정보 서비스와 통합된 게이트웨이로서의 로컬 개념이 요구된다.

3.2. 도서관 개념의 상속

도서관과 대여점 나아가 서점과의 차별성은 일차적으로 공공성에 있다. 공공성이란 일종의 보험으로 공익이 우선한 보험제도이다. 세금이나 모기관의 지원으로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보험과 같은 혜택, 당장은 소용이 없어도 언젠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곧 도서관인 것이다. 근대 공공도서관의 첫 출발이 회원제 도서관인 것으로 보아 공공성보다는 개인적 보험[십시일반(十匙一飯)]의 개념이 더 강한 것으로 당시의 사회복지 개념과 맞물려 공공성으로 거듭났다 하겠다. 비슷하게 대학도서관도 구성원들의 학술적 성장을 담보한 보험행위라 보는 것이 맞겠다. 비록 보험이 갖는 시한적 유연성에 비해 도서관은 시급성과 적시성이 공존하지만, 당연한 시급성을 포함해 적시(適時) 개념의 유연한 해석이 앞으로 나타날 상업적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정보욕구를 필요시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한 보험의 수단으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도서관인 것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자원)의 터미가 아닌 정보자원의 유용성을 높여주는 기능이다. 기 생산되어진 정보자원의 단순한 수집처가 아닌 개

인의 정보요구를 예측하고, 그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매커니즘, 그것이 도서관인 것이다. 개인의 정보요구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정보요구가 발생할 때, 그 정보가 그 개인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다. 만일, 그 정보 자원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 전달행위가 곧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기에 미리 그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은 정보자원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위인 것이다. 도서관의 수서정책은 이용에 대한 예측이고 준비 작업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장서는 수집의 결과가 아니라, 매년 적정한 이용의 결과이며 추후 예측되어지는 잠재이용을 전제한 정보자원의 유용성을 높이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정보요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며, 자원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원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출판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개인의 정보이용 비용을 줄이는 보험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도서관의 이 모든 행위는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는 정보자원의 유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정보이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도서관에서의 배열과 목록 작업이 체계적 관리의 하나이며 대출 행위가 서비스에 속한다 하겠다.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는 정보자원의 유용

성을 높이고 정보비용을 줄이는 수단이다. 수단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변화는 목적달성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서관은 수집이 목적이 아니다. 단지, 당시의 출판환경과 유통환경을 볼 때,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정보요구를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된 정보자원을 빨리 수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였으리라.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택배와 같은 유통구조에서는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있을 때 바로 그 자원을 지원할 수 있기에 예측의 기능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과거처럼 구입하여 잠재이용에 대비하기보다는 잠재이용이 표면화 될 때 그 자원을 다시 제공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게다가 무한한 정보자원의 증가는 정보자원의 수명을 줄였을 뿐 아니라 잠재이용을 위해 기존 자원을 대비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자원을 활용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었다.

디지털 정보자원은 생산과 유통이 하나의 구조로 된 매체이다. 도서관이 아무리 디지털 자원을 구입한다 하여도 스스로 유통을 책임질 수 없을 땐 구입이 아닌 것이다. 아직은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존 매체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디지털 매체의 출현이기보다는 모습만 디지털인 종이매체와 다름없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매체는 점차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며, 생산의 의미는 유일함을 의미하며 자원에 대한 접근은 곧 이용으로 해석되

어진다. 그러기에 도서관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채널을 개발하고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개발하여 다양한 요구에 입체적으로 대처할 새로운 목록 시스템(=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요구에 적합한 자원만을 이용시킬 수 있는 정보자원의 개발과 가공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자원의 유용성을 높이는 행위이며, 저렴한 정보비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3.3. 출판개념의 상속

앞 절에서 언급한 디지털 도서관이 갖는 도서관의 본질적 속성은 그대로 출판의 속성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도서관이 출판의 제1 독자로 가진 권리와 의무는 이용자의 정보유용성과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을 때 제1 독자를 향한 출판사의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정보 서비스인 것이다. 신간안내, 출판예정 도서목록, 서평, 각종 주제별 서목 등 자신이 출판할 도서의 최적의 선택을 위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독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는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못지 않은 수준이다. 출판과 도서관이 상존하기 위해 출판사는 도서관을 제1 독자로, 도서관은 출판기술을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출판의 제1 독자로서 도서관은 출판사에 출판물에 대한 보조자원(2차 정보자원)의 생산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물론, 도서관 내에서도 2차 정보자원을 생산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도서관 내 자원에만 국한하여 출판물의 유통 시스템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정보통신 시대에 이르러서는 의미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디지털 정보매체가 진화하면서 2차 정보자원마저도 1차 정보자원(contents)에 묶여 정보의 생산이 곧 유통과 판매를 내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서관기능의 외연으로서의 2차 정보자원이 1차 정보자원과 합치되면서 생산이 유통이 되었고, 제1 독자로서의 도서관 기득권은 단순히 이용을 위한 채널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서관을 단순히 이용의 채널로 만든 출판은 그 행위가 이미 도서관이 되고 말았다. 자신이 생산한 정보자원에만 한하지만, 자신의 정보자원의 유용성을 위해 2차 정보자원을 개발하고, 접근의 편의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서관의 본질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정보를 생산하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 모두가 정보자원의 유용성을 위하여 자신이 그 정보자원을 생산하든, 안하든 입체적인 정보 서비스가 요구되어지며, 정보자원의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일반화 시켜보면, 도서관은 정보를 이용시킬뿐 아니라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자원은 1차 정보자원을 포함하여 1차 정보자원의 유용성을 위한 2차 정보자원의 생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4. 디지털 도서관의 추론적 본질

전자도서관은 도서관의 한 형태가 아닌 진화된 미래형 도서관이다. 정보매체가 파피루스이건, 점토판이건, 종이건, 비도서자원이건, 또는 전자매체이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최적의 활용을 전제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자 곧 도서관인 것이다. 도서관은 그래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보자원의 접근 채널이자 자원생산의 매커니즘이 곧 도서관인 것이다. 도서관은 정보자원의 유용성제고와 가치창출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전자도서관은 도서관의 본질이 극대화된 개념이다. 자원의 특질과 서비스의 개념이 만들어낸 가치창출, 그것이 전자도서관인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관념의 세상, 모든 것을 곁에 두고자 하는 열망이 만들어낸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 그래서 인간은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관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늘 가까이에 두고자 했으며, 그 도서관이 개념화하여 늘 내 옆에 존재하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진화하였다.

4.1 정보 서비스

디지털 자원은 생산이 곧 소비인 패러다임을 갖는다. 매체가 갖는 특성상 디지털 매체는 네트워크 자원으로 과거 종이매체가 갖는 특성인 유통을 위한 복제는 디지털 자원이 존재하는 곳으로의 접근만으로 가능하기에 디지털 자원은 복제가 용납되지 않는다. 생산 자체가 유

일한 존재행위이며, 복제가 아닌 접근만으로 이미 과거 출판, 서점, 도서관 등의 유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자원은 생산과 함께 자신의 유용성을 위한 부가적 정보자원을 동시에 갖는다. 과거처럼 1차 출판자원을 위한 2차 정보자원이 별도로 생산되거나, 시차를 갖고 생산되어지는 것에 비해 디지털 자원은 1차 자원의 생산이 곧 2차 정보자원의 생산과 궤를 같이 하거나 동시적 행위로 진행되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은 이런 자원의 유통 채널로 생산 자체가 서비스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정보자원 역시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공간(virtual space)에서 서비스하므로 결국엔 모든 정보자원이 마치 한 공간(virtual space)에서 생산되어지고, 서비스되어지는 효과를 갖는다.

멀티미디어 제작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디지털 정보자원의 용도와 가치를 높였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자리매김한 종이매체를 이용한 출판문화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종이 중심의 출판문화는 디지털 출판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디지털 출판이 무형의 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종이 출판에서 습관이 된 종이책의 판형을 그대로 표현하려는 행위와 아직도 영상과 음성이 삽입된 자원에 대해 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 볼륨(volume)에 대해 개념이 없는 디지털 출판에 페이지와 권의 개념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결국, 이같은 인식변화의 지체는 디지털 출판의 과도기적 상황

을 만들었으며, 도서관의 행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초기의 도서관은 출판된 정보자원의 유용성을 위하여 제2차 정보자원의 생산과 유통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출판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하면서 도서관이 주도한 제2차 정보자원의 생산과 유통이 출판주도로 바뀌어 도서관에서조차 그 기능이 출판의 기능으로 인식될 정도가 되었다. 그나마 정보통신의 발달은 제2차 정보자원의 활용공간을 도서관에서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훨씬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유통을 이루어 냈으나, 그 주도적 역할이 도서관이 아닌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것이 도서관을 박물관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도서관은 과거 제1 독자의 지위에서 단순한 물류창고로 인식되면서 최신 정보는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기 생산된 종이 출판물은 도서관이라는 물류창고에서 단순히 정보제공을 해주는 소극적 개념의 도서관이 되었고, 특히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정보 서비스라는 주된 기능보다는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문헌보다는 학습공간으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 같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정보사회의 한 현상으로 점차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외국의 도서관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도서관이 책의 터미로, 그리고 단순히 제1 독자로 행동함으로써 점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서

비스에 안주하게 되면서 자발적 성장 메커니즘이 아닌 의타적 안주 메커니즘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한다는 것이 굳이 1차 출판물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제2차 정보자원에 대해 (물리적 생산이 아닌 기획)생산의 권리를 가졌다면, 새로운 정보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도서관에서 일어나고 또 자체적으로 구축한 제2차 정보자원을 통해 새로운 1차 자료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OCLC가 만드는 제2차 정보자원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단순히 이용을 전제로 한 생산이기보다 적극적인 1차 자료의 생산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은 아닌 것이 아쉽다.

정보 서비스의 본질은 정보의 생산이다. 단순한 음성적 행위를 포함하여 고도의 조직적이고 지적인 행위 모두가 정보의 생산인 것이다. 다만, 도서관에선 이런 정보가치와 생산에 대한 가격결정이 시장경제와 다르다. 시장경제에 의하면 수요가 많은 것은 가격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격이 내리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도서관은 보험의 개념(공공성)이 적용되는 곳이다. 수요가 많은 정보는 싸게 이용되어지고, 수요가 적은 정보는 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할뿐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는 같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자원이든, 이미 생산되어 도서관에 소장된 출판물이든, 수요에 따라 그리고 고객의 최고의 만족도를 위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일률적인 서비스만으론 경쟁기관에 비

해 저렴한 서비스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급 정보 서비스도 불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은 정보 서비스 그 자체에기에 정보자원을 소장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고 저렴하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4.2. 유비쿼터스

인류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역사에서 새로운 것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또한 기존의 것의 진화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상태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또한 유비쿼터스라 함은 인간이 모든 것을 주변에 두고자하는 욕구상태의 실체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응용은 도서관이 정보 서비스를 위해 정보의 유비쿼터스 상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재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위해 갖추어진 정보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인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뜻한다(정준민, 박성우 2005).

인간의 행위는 항상 자신이 갖는 관념의 세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연속이다. 모든 일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내가 필요한 것은 언제나 주변에 있어야 하며, 내가 원하면 항상 그곳에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곧 유비쿼터스 상태인 것이다(Araya 1995). 단순히 상대적 차이와 욕구충족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현실을 유비쿼터스 사회라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비쿼터스 사회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늘상 우리가 만들어 가는 사회

는 유비쿼터스인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멀티미디어란 용어 역시 매체기술발전의 현재적 표현일 뿐 신기술의 표현은 아닌 것이다. 단순히 기술주의자들에 의한 성급한 표현으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기술용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유비쿼터스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혼동한다. 물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역시 컴퓨팅 환경에서 물리적 개체 간 간접적 접촉에서 직접접촉의 지능화 과정임에 지나지 않지만...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마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디지털 도서관을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이응봉 2003). 그러나 도서관은 그 탄생부터가 유비쿼터스인 것이다. 내가 알고픈 지식이나 정보는 늘 내 옆에 있어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은 항상 당시의 최고기술을 요구하였으며, 기술의 발전은 곧 도서관의 변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매체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정보욕구에 대한 변화는 항상 정보를 내 가까이 두고픈 욕구와 맞물려 디지털 도서관의 형태로까지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시간을 거슬러 추론하여 보면, 도서관이 생기기 훨씬 전에 인간 개인의 정보전달행위가 존재했으며,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단순한 수집의 공간이었던 도서관을 차용하였거나, 도서관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출해 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최고 기술 환경 하에서 정보자원을 축적하고 또 가공하여 정보요구에 응했으리

라 본다. 그것이 곧 도서관이며,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도서관 역시 도서관인 것이다.

처음엔 정보를 가진 자를 만나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고, 필요에 따라 알고픈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그 정보를 가진 자를 찾아 나서기도 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의 유티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그런 기능이나 사람을 도서관에 정착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도서관은 당시의 최고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정보에 대한 유티비쿼터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5. 결 론

도서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그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가? 도서관에 대한 해석을 도서관 내에서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의 생성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기능이나 기관이 성장하면서 지금의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정보욕구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인간이 만든 새로운 기능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원이 무엇이든, 그리고 생성과정이 어떻게 되든 현재의 가치라고 본다. 그 가치가 본질적 진화이면 그 기능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기능은 도태되어 변형이 살아남거나 다른 기능에 흡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도서관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과거도 달라지지만, 현재의 정체성과 진화과정도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도서관이 책의 더미에서 출발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라면, 그 미래적 효용성은 이미 상실하였다. 과거 책과 기타 유물에 대한 취급과 활용 면에서 보인 차별성은 이제 전부 유물로 취급되면서 디지털 정보자원은 다른 채널과 다른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공간을 디지털 도서관이라 불러도 기존의 도서관과는 철학과 본질이 다른 이종(異種)인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본질을 책의 더미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인식하고, 책의 더미를 수단적으로 해석한다면 전자도서관은 도서관의 환경적 진화로 볼 수 있다.

도서관의 본질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같아야 하며, 그 변화와 발전은 본질에 대한 그 시대 기술의 최적화 작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 서비스의 본질인 출판기능이 존재하며 정보의 생산, 유통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무형의 가치창출 행위가 곧 도서관인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성식, 역, 2004.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가람기획. (Kramer, Samuel Noah, 1956, 1981, *History Begins at Sumer : Thirty Nine Firsts in Recorded History, 3rd Ed.*,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 송영희 외, 2005. 『디지털 시대의 장서관리』.

-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순룡. 1995. 『품질경영론』. 서울: 형설출판사.
- 이용봉. 2003. "Ubiquitous computing & Digital Library." 『제6회 디지털 도서관 컨퍼런스』, 2003년 12월 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 정준민, 박성우. 2004. 정보의 유비쿼터스적 해석을 통한 도서관 본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4): 265-279.
- 한국. 문화관광부. 200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003년 5월 29일 개정.
- ALA. 1943.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 ALA. 1983. *ALA Glossary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ALA. 1996. *Library Bill of Rights*.
- Araya, A. A. 1995. "Questioning Ubiquitous Computing." *ACM Proceedings of the 1995 ACM 23rd annual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230-237.
- Buckland, Michael. 1988. *Library Services in Theory and Context*. 2nd ed. New York : Pergamon.
- Cunningham, Adrian. 2001. "Six Degrees of Separation : Australian Metadata Initiativ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rchival Science*, 1: 271-283.
- Gerard, David, translated. 1976. *The Coming of the Book : The Impact of Printing 1450-1800*. London: Verso. 원전: *L'Apparition du livre* /edited by Lucien Febvre and Henri Jean Martin.
- Halman, T. S. 1995. "From Babylon to Liberspace." *American libraries*, 26(9): 897.
- Lee, Hur li. 2000. "What is a Colle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1(12): 1106-1113.
- Rabner, Lanell and Suzanne Lorimer, compiled. 2004. *Definitions of Reference Service: A Chronological Bibliography* [for the RUSA Evaluation of Reference and User Services Committee] Reported at 2004 ERUS Annual Conference Program *Developing a New Definition of Reference: Guidelines for Measuring Reference Services in the 21st Century*.
- Salaberry, R. 2000. "Pedagogical design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tasks: Learning objectives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4(1): 28-37.